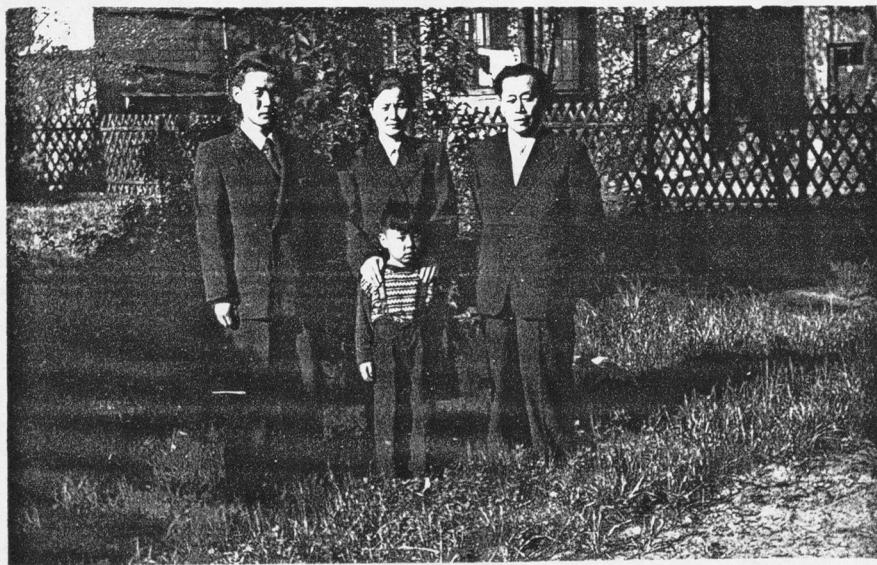




북한 정부 소위위 김두환 소장



북한 정부 동독 주재 대사관 함사로게 실시 김두환.
중가운데부터 박예가제리나 부인과 아들, 좌-영사.

남치당한 김두환 소장

사상검토 결과에 할평남도에 유행사리가었던 김두환씨는 당중앙 부부에서 숙희 표경양에 올라 오라는 전화를 받고 1964년 8월 14일에 평양 자기사택에 오셨댔다. 그때에 바로 자기 부인 박 씨가 제리나는 집에 안게섰기에 만나보지도 못하고, 열집 사택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 복학하기를 「내가 함흥에서 바로 올라오는 길인데, 우리 집사람이 안게시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하고 당중앙 부부에 잠깐만 다녀볼터이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한다고 하면서 30분전에 갔다고 씨가 제리나 아즈어남께 어숙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하였다. 그 말을 듣고 씨가 제리나 아즈어남은 마침 광복기념 전날에 왔다고 기뻐하면서 구좌한 세간사리지만 좀맛있는 음식을 정해서 점심스럽게 대접하겠다고 저녁식사를 갖도록 하였다. 그런데 무슨일인지 낮 3시경에 동네 사람들이 다 만나 보고 언사하였는데 벌써 저녁식사로 다 준비되고 시간은 저녁 7시가 되어서 두환씨는 오지 않아 씨가 제리나 아즈어남은 울땀에 누서 있었다. 어제야, 어제야 하면서 기다리던 씨가 제리나 아즈어남은 밤 12시까지 기다리기도 두환씨는 도착하시지 않았었다. 씨가 제리나 아즈어남은 밤에 한잠도 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내고 8월 15일날, 광복절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 전에 당중앙 정문에서 집대원을 찾으니 보초병들은 아무 것도 보지도 못하고, 내복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근방에

서서 엮게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가 그러리나 아크리너는
하는 수없이 집에 돌아와 남보기 부끄러워 집안에 가만히
안자서, 자기가 잘 알은 일을만한 몇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도, "그것이 별일이라기 할 뿐, 다른 속풀릴만한 대답은 없었다.
그 다음, 예가 그러리나 아크리너는 광복절이 지나가면 당중앙
간부부에 가서 독환씨의 행적을 알수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김두환 씨는 1905년 10월 13일에 북한, 함경북도
회령읍에서 탄생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김두환 씨는 부모를 따라
원동변강 아누친구역 고르제역이 촌으로 어귀하
여 갔는데 그 촌에서 1918년에 노학을 졸업하였다.

1919-1924 부모와 협력하여 농사에 종사함.

1924-1927 원동변강 소베르구역, 한흥동에서 초중학.

1927-1930 원동변강 독립군단 제 26사단, 76연대
에서 지격수로 부원군대 복무.

1930-1932년 "새길" 깎호르 회장

1932-1935년 원동변강 하바롬노크시에서 공산대학 편.

1936-1937년 원동변강 한기이구역 "신두원가" 깎호르
당 위원회 위원장.

1937-1938년 호레즘 주, 공산주의구역 초중교장

1939-1943년 호레즘 주 후르민구역당 지도원,

1943-1945년 호레즘 주, 후르민구역, "바이날-리날" 깎호르
당 위원장.

1945-1948 북한, 함경남도 소군사령부 출판물 편집원,

1948-1950 북한 내무성 경비국 정치부장.

1950년에 동족상쟁이 시작되자 삼팔선 경비군 여단장으로 임명되어 1950년 6월 25일 아침 5시에 맨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하고 남침한 여단장으로써 북한 정부를 붙여 수취에 걸쳐 극기훈장, 자유독립훈장을 수여 받고 1953년에, 전쟁 말엽에 임박하여 북한 육군대학 단기 강습을 필한 다음 정부 소속 여단 여단장으로 임명되어 1955년 초까지 복무하였다.

1955년-1957년에는 동독주재 조선대사관 영사로서 복무하였으며,

1957년 1959년 평북시 시인위원회 상임부장,
1959-1962년 대외무역성 부장으로 일하시다가

1963년 공훈에 힘입어 함남도 함흥주변 소기업소 복지대인
으로 파견, 1964년 8월 14일에 평양에서 남치당협
당국정책, 인간에 대한 배려주의를 일삼아 북한이 전혀
진실한 간부들을 내세울 수 없다는 김일성의 골드들은, 차라리
죽으면 자기가 죽어도 최엽은 정직한 자기 친구들을 허위 날조
하여 살해하지 않으려는 김두환씨와 같은 간부들도 일고자로
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대외무역성에서 일하시던 정치연전부 간부
들은 소련에서 나온 간부들에 대한 재료를 두황씨 보고 확인하
리니, 또 자기가 전혀 알수없는 재료들을 요구하거나 하는데
대하여 두황씨는 화낼 터일 빌기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였다.
김두환 선생은 소련간부들중 사업경험이 풍부한 가장 능력
있는 간부였다. 그는 소련에서든 소련군 정주군 복무를 법적으로
끝냈어도 소련 공산대학을 필한 다음 당-정치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북한에 가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두황 선생에게서

거절을 받은 정치보위부 간부들은 그 선생을 평양에 두었다
 해야 자기들에게 별유익이 있을것을 확인한다든 함경남
 도에 유형사리를 보내었다. 이것은 임시적 필요에 의한 조치
 였으나 정직한 김선생은 악당들의 조주하든대론 유형지
 에 가서 계시다가 김주환 선생의 죽음이 필요할 때에는 그 선
 생을 불러다가 도중에서의 동방불벌자로 만든 선생의 생애
 를 배배맞고 심문중에 있던 죄인들에게는 김선생의 1영의를 조작
 한 허위물건을 보이면서 「어쩌면 그 선생이 죽은 물건이 아닙니
 까? 라고 하면서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자는 천인
 공노할 허위날조자들의 보충적 행사였다.

예가르세리나 아르세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자 의심이 넘
 도록 누구를 한번 속인 일이 없고 남하고 높은 목소리로
 말해본 일이 없는 정직한 항상인자고 자기 남편 김주
 환 선생을 무한히 존경한 녀인이다. 예가르세리나 아르세
 리는 광복절이 지난 16일, 17일, 18일 연 3일을 당중앙간
 부부에 명회를 모청하였으나 중앙당 출입구 근방에도 갈수가
 없었다. 당중앙 본부로 불어 나오는 사람들과 물이면 전복 다
 어 구등등으로 한가지 대답 「잘 알수 없습니다」라고 외치
 고는 자기 걸음을 걸어가 온 것이었다.

노위 법치국이란, 어니 세상에서 가장 인륜극악한
 조선 인륜극악의 국가가 어러하니,

이것이 무법천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생생한 사람을 얻고도 알아볼 길이 없으니,

예가르세리나 아르세리는 꼬질로 바른 중앙 전화국에 가서
 김선생이 내려가서 열하던 함경남도비 전화를 걸어

물어보지^다 공양 강북부의 송환에 의하여 벌써 8월 13일에
 언사하고 떠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14일에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고 옆집사람 등이 만나 봤다는 것도 사실인데
 전술이 허실로 되었으나, 이 일을 해결할 길이 도저히 없었다.
 허는^수 없어 그 이른날부터는 평양주재 소련 대사관으로
 다니면서 방조를 받았다. 대사는 많은 경식공물을 내어
 조선 외부성에 보내줬던바, 외부성은 삼일동맹 회담하기를
^{김주환}씨의 행적을 알수없는 아무런 한 근거도 없으나,
 차후 어떠한 흥보라 될수되^리엔 알리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후 예까지러나 아즈너니는 계속 대사관으로 다니는 한편
 공양당 강북부에, "김여화는 어머니 김일성 주석에게" 편지를
 내고 시내우부와 시경우부에 부쳐 다니면서 각 구급처치
 소에서 업무되는 재물에 따라 죽은 사람들을 공에서라도 두한
 선생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도 알지낼수 없었다.

예까지러나 아즈너니는 매일 날이^한씩^씩 대사로
 공양당 시경우^부등에 다니면서 오개월 동안 애하는 걸음
 에 눈물을 많이 흘리었으나 - 알아볼 길은 전혀 없었고
 단 한가리 일음을 믿고 살게 되었던바 그것은 날이 저물어
 어둠이^지면 집에 들어가 앉아서 출업할만 하다^되면서
 인제나 - 먼제나 들어오^는가 하는 일음이었다. 예까지러나 아
 즈너니는 김선생이 행방불명어 된지 오개월이 넘도록
 소식어 없고 너무나 답답하기에 결심하고 김선생
 내려가 정변사리하던 함경남도 경주리, 경주한강에
 가보려고 결심하였다. 함흥까지는 기차에 타고 다음
 은 계속 배를 타고 산골길로 생시간 동안 계속

가야 되었다. 한광에 도착하고 보니 한 두테-산골, 어렸을
 때에 옛날로 들었듯이였다. 그레야 씨제리나 아즈너는
 어린골에서 자라났다는 걸 하나 고생하였는가를 알 수 있었
 으려 "어린" 김일성 악당들은 어대한 수장은 간부들은
 유병보의 허제로 썩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되었다.
 김일성이 일년 동안 한숨쉬고 흥분한 눈물 흘리던 밤에서
 자고 자라라 아침은 눈 옥수수밥 향긋스런 얼어죽은 짝 짝 한광
 사무실에서 지배인과 당조직원을 만나 김일성의 소식을 들으니
 그들은 어주동성으로 8월 12일에 일을 끝내고 평양 당간부
 부에서 왔다 가라고 하기에 간다고 하면서 13일 새벽에
 죽이 떠나갔다고 하고, 김일성의 성격에 대하여 말하니
 "한 법이 없어 살 어 죽어 버리고" 하면서 "진중일 지나가야
 거지 물어보는 말이나 낯 익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주는
 정도였다고" 하였다. 씨제리나 아즈너는 다시 김
 일성의 살던 집에 돌아 오면서 생각하기를 "아! 유병
 사리 귀찮아서 그렇게 말하여 속을 속였던 모양이
 라고 인정하였다. 집에 돌아와 김일성의 짐을 전부 다 훑어
 보니 그것을 전부 다 가지고 평양에 오려와야라 죽어 버
 러 보곤 그대로 죽거나 연말까지 다른 소식 없는
 이런 집에서 다 사 용하시라 하였다. 씨제리나 아즈
 너는 농촌에서 그렇게야 구차하게 ^{살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하였다.
 죽어 버리는 네 식구에 두방언에 집안에는 의복장이나
 세간 그릇장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의복도 여유한 전부 없고
 내복은 러죽에 비탈아서 새벽에 다시 입고 가버리며, 먹는 것은
 옥수수, 조어살, 엽살은 20%나 환한 한 해의 1년 일 배 굶은 굶은

700그램, 아이들은 300그램씩 주노바 오도다 절반씩을
 주는 행동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 식주에 어울릴 수 있을
 가치인 어플 들은 달고 과인 아이들은 자기 의복이나 어플들
 의복으로 가져가고 자는 행동이 없다. 심할은, 시월중을에 학교
 에 다니는 아이들사 반수가 발을벗고 다니며, 동산에는 짚선이
 나, 극상하에서 고무신을 걸어 선노바인 제 일 좋은 형장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행동에서 예까지되나 아크러니는 자기
 편이 물건은 갖가지인 것 행동이 보였다. 평양에 돌아온
 예까지되나 아크러니는 아이들은 데사관을 통하여 소련의
 코공부하러 (아를 형제) 보내고 볼언은 소련 데사관에
 노무자로 취직하였다. 이것은 우선 아직 평양에 계속 남아
 았자면 국고산 돈이 필요하였으니까, 둘째로 데사관에 취직한
 것은 소련 데사관 노무원은 집에서 내뚝구지 못하였던 것이
 이다. 볼언의 신분 안전도 어느정도 보장되리라 생각하였기
 때 붙어왔다. 이당시에 평양은 소련서 온사람들에게 호화
 예 무시-무시한 도시였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간부로 지내던
 사람은 평양에서 거이나 다 없어졌지만 소련에서온 간
 부들은 일왕타진 된셈이었다. 소련간부로서의 갑목이나 유
 형사리 만하고 일하는 사람은 김봉돌, 밤 흑세, 김학인
 세명뿐이었다. 특별리의 가족은 볼리 잘알지 못한 가정
 으로서 예까지되나 아크러니는 한번도 그집들에 갔다온
 일도 없었지만 김선생이 유행리로 떠난 다음에 어린
 예 아크가갈게 다니던 집들에서든, 지어는 이웃에서
 는 집들도 서로 한나번 인사도 안받으려고 눈을돌리고
 지나가는 정도거나 이평양 생활이 그분위기 전부터 많은
 풍금이었다.

이렇게 무심-무심하곤 가슴이 죄우듯한 압축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고 살기란 여간 바쁜 일은 아니었으나- 가느다란 실노리만이라도 연결되어있다고 짐작한 그 믿음, 자기 남편 김선생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다보니, 벌써 세월은 흘러 김선생의 자취가 없어진지 몇한해가 지난 1975년 에 와서는 예까지리나 아프너니도 평양에 계속있었다 해야 김선생을 만나볼수없는 희망은 없다는것을 판단하고 아이들을 달아 보편으로 모으면서, 만약에 김선생이 살아 있다는 소식만 비슷하게라도 들으면 다시 돌아갈 결심을 가지 고 있었다. 예까지리나 아프너니가 들면서 평양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나고보니, 이제 2년을 더 앞으런 불쌍하게 자란 딸아들녀 환갑이 돌아오고, 예까지리나 아프너니는 당연 85세가 되나 김선생에 대해 위로와 평생을 드리지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던바 태끼 식사하 실때이면 김선생의 우절도 꼭 같이 갖아놓고, 또 저녁에 자리에 누으실때에는 김선생의 침구도 꼭 같이 포키놓르즈 으시곤 한다. 그러면 예까지리나 아프너니는 어느때까지 지나 계속 어떻게 지내시겟는가?

비원간적으로 남편을 배배앗아간 북한정복로 불어 공식적 부고를 받기전에는, 살아계시은한 계속할것이다. 사람이 애말라 극제하는 역사를 빛어내는 나라가 북한 외에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단말인가?

우르베코스한 고려인 유가족후원회.